

<2012년 8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섭리사를 나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고, 이들의 운명이 본래부터 예정돼 있었느냐고 물으니, 성자 주님께서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천국으로 예정됐는데 책임을 못 해서 지옥으로 가게 됐다.
2. (왜 자기 책임을 못 하느냐고 물으니, 성자 주님께서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여 책임을 못 하게 된다.
3. 자기 책임을 해야 존재한다.
4. ‘책임’은 자기 생명을 존재하게 한다.
5. 자기 책임을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을 얻는다.
6. 인생은 얻기 위해서 배우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으며 자기 책임을 하면서 산다. 자기 책임을 하면 소망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다.
7. 자기 구원도 자기 책임을 해야 얻게 된다.
8. 전능하신 성자가 시대의 구원자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받을 자다.
9. 세상의 어떤 존재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그것을 만드는 데까지 책임을 다해야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신앙 안에서 사람의 육과 영도 그러하다. 자기 책임을 다해야 육의 삶도, 영도 온전히 만들어진다.
10.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존재하려면 자기 책임을 해야 된다.

11.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께 기도하여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 책임을 다하여라.
12. 인간은 전능자와 구원자와 일체 돼야 완전하다.
13. 인간 자체로는 반쪽 인생이다.
14. 모든 존재물이 완성되려면 만드는 자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15. 책임 분담 완성은 ‘존재 완성’이다.
16. 책임을 하다 말면 ‘존재 미완성’이다.
17. 인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자가 주는 책임이 있다. 이를 행해야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18.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시즉시 행하여라.
19. 매일 존재, 매일 책임이다.
20. 책임을 하는 만큼 차원이 올라간다.
21. 개인, 가정, 민족, 세계, 하늘까지 책임이다.
22. 하나님도 성자도 인간을 통해 해야 될 책임이 있다.
23. 책임을 해야 소원을 이루며 존재하게 된다.
24.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는 다 해 주시겠지?’ 인식하고 산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가 다

해 주셨느냐? 하나님 존재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 존재의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존재체가 다르다.

25. 가령 부모가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부모가 힘이 있어 아기를 위해 다 해 준다고 해서 아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기도 자기 자체 기능을 위해서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젖을 먹여 주면,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자기 자체 기능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존재한다.) 하나님과 성자 앞에 인간도 그와 같다.

26. 지금 이 잠언을 쓰는 시간은 새벽 1시다. 잠언을 주는 것은 성자의 책임이요, 잠언을 받아쓰는 것은 내 책임이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셨으니, 나의 노력과 책임에 따라 성자께서 더욱더 말씀을 주신다.

27. ‘책임’이란, 존재를 만들기 위해 할 일이다.

28. 성자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셨고, 나는 일어나 기도했다. 고로 주님은 이와 같은 잠언이 생각나게 해 주셨다. 주님이 잠언을 주셔도 받는 자가 받아쓰는 책임을 안 하면, 이 잠언들은 역사에 남기지 못하고 모두 깨닫게 해 주지 못하고 내게서 끝나고 만다.

29.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을 안 했더니 그 일이 안 되었다.

30. 책임은 할 일이다.

31. 책임은 그 책임의 사명자가 하는 것이다.

32. 책임자는 그 일을 잘 아니 더 잘하게 된다.

33. 책임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강하다.

34. 책임자가 주인이다.

35. 전능하신 성자는 책임자에게 함께하신다.

36. 책임자는 운명을 좌우시킨다.

37. 자기 책임분담을 보화 찾듯 찾아라. 자기 책임이 너무도 많다. 수십 가지를 찾아라.

38. 성자 앞에 해야 할 책임분담을 어서 찾아서 행하여라. 즉시 잘되고 형통한다.

39. 깨닫는 자는 기록해서 주는 책임, 외쳐 주는 책임이다.

40. 사람이 책임을 못 하면 악한 자가 된다. 책임을 하여 자기 욕과 영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면 악한 욕과 영이 된다.

41. 세상에서 ‘욕’이 존재하면서 욕을 안 쓰면, 욕은 시체같이 아무것도 못 한다.

42. 완벽한 ‘차’가 있어도 책임을 해 주는 만큼 간다. 가만히 두면 안 간다. 이와 같이 자기 인생도 그러하다.